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의자왕은 과연 삼천공녀를 두었을까

당시 왕실 규모론 3천공녀 불가능

1. 의자왕의 두 평가

인류사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한 나라의 개국 시에는 모두 승자가 되지만 한 나라의 패망 시에는 모두 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사(正史)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되며 패자는 정사에서 지워지거나 왜곡된다. 반면 야사(野史)는 승자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패자도 기록해 정사가 그려내지 않은 혹은 못한 그려내지 못한 진실을 전해준다. <삼국유사> 역시 역사서라는 점에서 승자의 기록을 담아낸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승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패자의 기록도 담아냈다. 점에서 '야사'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정사인 <삼국사기>가 담아내지 못한 것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사서'(代案史書)라는 평가가 온당한 표현일 것이다.

흔히 한 나라의 마지막 왕에 대해 역사가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한 묘사를 덧붙이곤 한다. 후백제의 견훤에 의해 몰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태조에게 귀부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대왕'(경순왕) 조목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연은 백제의 의자왕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목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의자왕은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태조 춘추공'으로서 무열왕의 업적 속에서 기술할 뿐이다. 아마도 일연은 의자왕이 역사의 패자였기에 그렇게 편집했을 것이다. 반면 고려 인이자 국사를 역임했던 일연이었기에 고려 태조 왕

있고 기록에서처럼 재위 16년이면 의자왕이 60세경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60세 이상의 노왕이 과연 공녀를 탐하고 술에 탐닉할 수 있었을까 자못 의심된다. 더욱이 젊은 시절 총명했던 그가 그렇게 쉽게 말년에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질 수 있었을까. 더욱이 백제가 멸망할 때의 의자왕의 나이는 66세경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2. 정복 군주와 삼천 공녀의 진실

부여(사비)의 왕성 중심에 있는 소박하고 우아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영광과 자람을 담고 있다. 당시 백제는 큰 나라였다. 김유신의 백제 공격에 대해 진덕여왕은 "작은 나라인 우리가 큰 나라인 백제와 건드렸다가 [以小觸大] 위험을 당하면 장차 어찌하겠소"라는 대화를 남기고 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신라인들에게 백제는 '큰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의자왕은 재위 2년에는 신라를 공격하여 40여개의 성을 빼앗아 정복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후에도 10여 차례나 신라를 공격하여 낙동강 서부전선을 차지하고 신라를 동부전선 밖으로 밀어냈다. 남쪽으로는 창녕의 황강을 이용하여 경주의 관문인 함천 대야성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백제를 상징하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의 1층 탑신부에 새겨진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에는 당시 강성대국 백제는 620만 명의 인구를 지녔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 기록에는 백제 멸망시 인구가 76만호였다고 하며, <주서> '백제전'에는 당시 부여 인구가 1만호였다고 하니 5인 1호로 셈하면 5만 명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중 여자를 그 반인 2만5000명을 상징하고 어린이와 노인을 빼면 1만5000명에 이르게 된다. 3000공녀라면 이 중의 20프로를 잡아야 3000명이 된다. 하지만 당시 이렇게 많은 공녀가 왕궁에 거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공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굳이 3000을 셈해 본다면 '공녀'만이 아니라 궁중의 '부인' 들까지 포함한 숫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명종대 천재 시인이자 문인인 민재인(閔齋仁)은 '백마강부(白馬江賦)'라는 시를 통해 백제의 3000 공녀에 대해 처음 언급하고 있다. 이 시는 "구름 같은 삼천 공녀/ 후궁들의 고운 얼굴에 눈물 없네"로 시작한다. 조선 후기 이익(李穡)의 <성호사설>에는 당시의 공녀가 684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 고종 때 정공뿐만 아니라 별궁의 공녀들을 합쳐 600여 명이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조 제26대 고종 당시 궁녀 수가 별궁을 합쳐 600명이었던 기록으로 본다면 7세기 중엽 당시 사비성에 3000여 공녀가 있었다는 기록은 설득력이 없는 숫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그리고 7세기 중엽의 왕실 규모로 볼 때 3000 공녀가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삼천'이라는 숫자는 불교나 문학에서 즐겨 쓰는 것처럼 '문학적 장치'이자 '슬픈 상징'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3천공녀가 몸을 던졌다고 알려진 충남 부여 소재의 낙화암 위에 세워진 백화정. 이는 '백제의 꽃'이라는 의미를 지닌 정자다.

7세기 왕궁규모로 3천공녀 거처 힘들어 셈하자면 '공녀'와 '궁중부인' 까지 포함

3. 십자 동맹과 의자왕의 최후

당시 백제는 당시 동아시아 질서를 리드하던 당나라는 백제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백제는 성왕 이래 신라와 나제(羅濟)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았다. 하지만 신라는 다시 백제를 쳐서 한강 유역을 빼앗아갔다. 그러자 무왕 이래 의자왕은 한성백제의 거점인 한강유역을 되찾는 것이 숙원이었다. 의자왕은 재위 2년에 신라를 쳐서 40여개 성을 빼앗았다. 15년에는 다시 고구려와 말갈과 함께 신라의 30여성을 쳐부수었다. 그렇게 되자 위기에 빠진 신라의 진덕여왕은 자존을 세웠던 신덕여왕 대와 달리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어 갔다. 점차 신라는 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당나라의 복식과 연호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당은 백제에게 신라로부터 빼앗은 성을 돌려주려며 외교적인 간섭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의자왕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당과 신라가 '가로' 동맹을 맺고 백제의 공격에 나서자 백제는 고구려와 왜국을 설득하여 '세로' 동맹을 맺어 십자(十字) 동맹을 완성시켰다. 거기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판은 신라와 당나라의 '가로 획'과 백제와 고구려 및 왜로 이어지는 '세로 획'을 합쳐 '십자(十字) 동

맹'을 형성시켰다. 당나라는 소정방을 총사령관으로 한 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산둥반도의 성산(城山)에서 덕물(積)도를 거쳐 금강 하구로 쳐들어 왔다. 신라는 김유신을 총사령관으로 한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사비성(부여)으로 진전해 왔다. 신라와 당이 백마강과 단천을 지났다든 소식을 들은 백제 의자왕은 계백의 5000결사대를 모아 황산벌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르게 하였다.

당시 의자왕은 웅진성에서 농성전을 이끌고 있었다. 웅진방어사령부의 실질적인 지휘관은 웅진방령 예식(禮植)이었다. 그런데 의자왕은 항전 10일째인 660년 7월 18일에 갑자기 항복하고 만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의자왕과 태자 효(孝)가 제 성주들과 함께 항복했다" [王及太子孝與諸城皆降]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의자왕이 태자 및 웅진방령군을 거느리고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했다" [義慈率太子及雄嶺方領軍等, 自雄津城來降]고 적고 있다. 반면 <신당서>에는 "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했다" (其大將植又將義慈來降)고 했고, <삼국사기>보다 200여년 앞선 <구당서>(945)에도 "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했다" [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고 기록하였다. 사서 기술의 문법에서 볼 때 <신당서>와 <구당서>가 항복의 주체를 의자왕이 아니라 부하인 예식으로 기술한 것은 그가 당시 무엇인가 특별한 역할을 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구당서>의 의자왕 항복 기사 바로 뒤의 용(融) 관련 기사에는 "그 대장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와서

의자왕, 측근과 당에 투항했다고 기술 정복군주 의자왕 이미지 왜곡되기 시작

항복했고 태자 용은 여러 성주들과 함께" [其大將植, 又將義慈來降, 太子隆并與諸城主皆同送款]라는 표현은 태자 용이 주체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민족사학자 신재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의자왕의 항복 장면을 "웅진성의 수성대장이 왕을 잡아 항복하라 하며 왕이 자결을 시도했으나 동맹이 끊기지 않아... 당의 포로가 되어... 묶여 가니라..." 라고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이 문구는 의자왕이 측근인 수성대장 예식에게 잡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문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중국 역사학자 바이근싱 산시대학 교수는 여기서 '테리교'는 '왕을 사로잡아서 당나라에 투항했다'는 뜻으로 단언하고 있다. 아마도 의자왕은 동아시아질서를 주도하는 당의 비위를 거스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때부터 '정복군주'였던 의자왕의 이미지는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화암 아래의 고란사 벽화에 그려진 삼천 공녀의 낙화하는 모습이 봄날 떨어지는 꽃잎처럼 겹쳐지는 것은 나만의 소회(所懷)일까?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역사 패자 의자왕, 무열왕 업적 속 기술 백제 멸망시 의자왕 66세로 추정

건에 귀부한 경순왕의 경우는 의자왕과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승하 이후에 후세 사가들에 의해 기록된 왕호의 풀이처럼 '의자왕'(義慈王)은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었다. 그는 무왕과 선포공주(일설에는 익산 호족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삼국유사>에는 그가 "무왕의 받아들로서 융맹하고 담력이 있고, 어버이를 효로 섬기고 형제들과 우애해 당시에 '해동 중자'로 불렸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의 춘추시대에 '효성'과 '우애'가 넘친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에 빗댄 것이다. <삼국사기> 제28권 '백제본기' '의자왕' 원년 조는 그가 "용위 용감하고, '담력'과 '결단력'이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재위 16년 조의 기록에는 왕이 공녀와 더불어 음탕(淫蕩) 탐락(耽樂)하여 술 마시기를 그칠 줄 모르자 좌평 성충이 극간하였으나 왕이 성을 내어 성충을 옥중에 가두었다고 한다.

국립 부여박물관 유물 중에는 의자왕의 아들인 태자 용(融)의 묘지석이 보존되어 있다. 이 묘지석에 의하면 용은 원술 원년(682)에 68세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역산하면 그는 615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용이 대학 의자왕의 20세경에 태어났다면 의자왕은 아마도 595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가 재위에 올랐던 시절(641)은 46세경이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야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평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나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 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의 제자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상담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추명사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8-24 (지하철 5호선 화곡역 7번출구) 휴대폰 010-9217-2237